

C O N T E N T S

인 의 협 's O p i n i o n

N e w s R e v i e w

인 의 협 활 동 보 고

↳ 서 경 지 회

↳ 대 전 충 남 지 회

↳ 대 구 경 북 지 회

↳ 부 산 경 남 지 회

G P 가 말 하 는 대 리 사 회 , 대 리 노 동

회 원 소 개 : D

C O M I N G S O O N

보고싶은 내용을 선택하시면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인의협's Opinion

[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성명]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미 농무부(USDA)는 2017년 7월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성명]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인물인 김현종을 문재인 정부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그림 3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규제특례구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되고 나서 말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모든 사회 공공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는 '서비스법' 추진을 합의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 건강/보건의료, 정보인권, 환경, 노동 단체 등이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8월 7일 정부는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사태의 핵심관계자이자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임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논평]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인데 왜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은 후퇴하는가?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과 관련하여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율의 목표치가 낮다는 점과 비급여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점 등을 다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논평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각계 각층의 임명철회 요구에도 정부가 임명을 철회하지 않자, 다시 한 번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그 어떤 정책적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박기영교수 임명건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News Review

언론속, 인의협회원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2022년까지 70% 달성 목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후순위로 밀렸나" 의구심 제기



정형준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그리고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전략도 부재한 것 같다"며 "선별급여 확대 적용이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보장률 70%를 달성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뉴스보러가기

[참세상] 文, 한미FTA 주도한 김현종 영입하나...전농 “촛불 혁명 배신”

-시민단체 “미국에 선물 안긴 인물” 반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 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등 9개 시민단체도 26일 성명을 통해 “김현종은 대기업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 정책을 말살한 인물”이라며 “외교통상부는 그의 주도 아래 공공성과 인권이 우선돼야 할 지적재산권 및 보건 의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뉴스보러가기

[한겨레] 전문가들, “비정형 광우병 소도 사람에게 전염 가능”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비정형의 경우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광우병에 대한 지식을 뛰어 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보러가기

[헬스코리아뉴스] 병원 연계 헬스케어 보험, ‘환자유인알선’ 논란

-KB손해보험·서울성모병원, 당뇨케어 서비스 내달 출시 ... 진보의료단체 “의료법 위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KB손해보험의 상품은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보러가기

[메디컬타임즈]"의료는 공공재 아닌 공공적...책임 주체는 정부"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 "동네의원과 소통없는 지역거점병원 존재 못 해"



지역 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지역 거점병원은 존재할 수 없다. 외래를 최소화하고 지역의료계와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입원 환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외래는 지역 의원에서 받도록 시스템을 하는 것도 공공병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한다.

▶ 뉴스보러가기

[미디어오늘]“세계적 과학사기사건, 황우석 사태 교훈 잊지 말아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회 공동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는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기여하지 않았는데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연구부정”이라며 “신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의 중대함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황우석 연구팀에 지원된 수백억 원이 본인과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냐”며 “이 사건은 당시 전세계적 과학 사기사건이 되는 바람에 한국 과학자들의 신뢰가 실추돼 다른 국제 저널에 논문조차 못올린 사람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명공학, 생물학, 과학 분야 신뢰도에 끼친 악영향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녀사냥인가”라고 반문했다.

▶ 뉴스보러가기

[노동과 세계] “부산 침례병원파산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해소와 새로운 공익적병원 설립 절실”



부산참여연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약 20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은 7월 18일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보러가기

[경향신문]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첫 ‘인권’ 조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개 기관은 지난 7월부터 인권위로부터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실태조사 관련 용역 업무를 맡아 진행 중이다.

▶ 뉴스보러가기

[국제신문]의식불명 일본 반핵활동가 생명 구한 ‘균도 아빠’



부산·경남을 방문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일본 반핵단체 활동가가 ‘균도 아빠’로 알려진 이진섭(54·사진)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대표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적은 경남 합천의 한 탈핵활동가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 김 씨의 사연을 전하면서 일어났다. 인의협 이보라 사무국장은 “김 씨의 귀국길에 동행할 수 있을 의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뉴스보러가기

[연합뉴스] 파산 침례병원 대신할 공익병원 설립 시민대책위 결성



시민대책위에는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 뉴스보러가기

인의협 활동보고

7월 2일 / 문송면·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7월 2일 (일) 마석모란공원에서 '문송면·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 존칭생략) 강아름, 김봉구, 김철주, 이상윤, 임상혁, 정일용, 최규진 총 7명]

- 진료소 활동**
- 진행날짜 : 7월 7일, 14일, 21일, 28일(동대문)
8월 4일, 11일, 18일, 25일(동대문)
8월 6일, 20일(서남권 글로벌센터)
 - 7, 8월 참여 선생님 : 이석영, 임소윤, 장연식, 최진미(동대문)
박혜경(서남권 글로벌센터)
 - 7월 환자 수 : 31명 (동대문)
 - 8월 환자 수 : 39명 (동대문)



〈동대문진료소〉



〈서남권 글로벌센터〉

전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참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사업이 7월 3일 예비조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의협에서는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거주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월, 서울·경기지역부터 시작하여 8월에는 강원, 대전·충남지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지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에 흔쾌히 응해주신 인의협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8월 조사 참여자: (가나다순 / 존칭생략) 강아름, 김주연, 김화준, 나준식, 문나연, 박경남, 박지영, 백남순, 송홍석, 이미옥, 이승홍, 최석재, 허애령 총 13명

7월 21일 / 복지부 법인감사



인의협은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1일, 복지부 법인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의협에서는 큰 문제없이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이미옥, 이보라선생님 감사합니다^^

▼ 사진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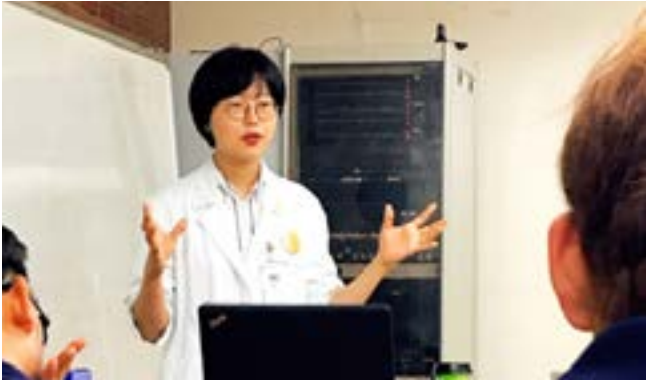
- 일시 : 2017년 7월 13일 ~ 7월 15일
- 장소 : 안산합동분향소, 기억교실, 반올림 농성장, 녹색병원, 성주 소성리

인의협 의대생 캠프 피스로드 팀!!

2박 3일의 일정을 사고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1일차 안산에서 모여 부산커뮤니케이터의 온국민주치의제도에 대한 발제와 서로를 알아가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은 후에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진행 후에는 분향고와 기억교실을 방문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식사 후,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찾아 황유미씨 아버님 황상기님, 이종란노무사님, 공유정옥선생님, 그리고 혜경씨 모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일차에는 녹색병원을 방문! 김봉구 원장님과 백재중 부원장님이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고(백재중선생님께서 선물도 주셨어요!!><♥), "녹색병원의 역사와 인의협 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보라 선생님께, 그리고 "한국 역사 속 의사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최규진 선생님께 강연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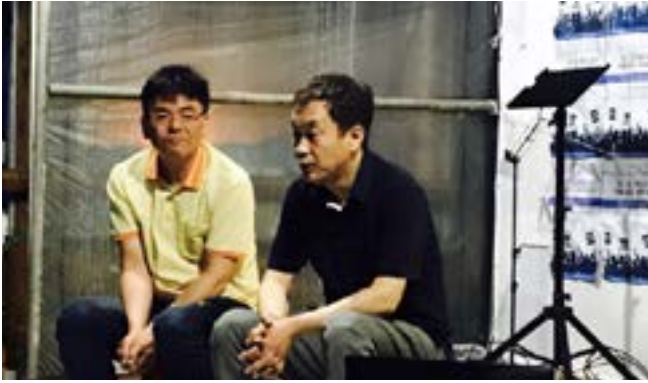
이외에 녹색병원에서 운영하고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센터 등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양주희, 정애향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대해서도 윤간우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인의협 회원이자 녹색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성주로 출발!!



성주에서는 대경인의협 소속 선생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식사 후, 성주군청 앞에서 진행되는 촛불에도 참여했어요!!(피스로드 단장님 발언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김성아, 김일회, 노태맹, 송광익, 이종우, 김선주 대경인의협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는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해서 대경인의협 의 노태맹 선생님, 부경인의협 의 정운용 선생님과 "톡터뷰"를 진행했어요! 예정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열의 가득한 질문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톡터뷰가 끝나고, 뒤편이까지 !!

*함께해주신 대경인의협 의 김성아선생님, 이종우선생님, 김선주 팀장님과 부경인의협 의 김종목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날까지 팍팍 채워진 일정!!

소성리이장님과 상황실장님,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과 사드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피곤함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머릿도, 가슴도 팍팍 채우고 돌아와 부듯함도 가득했습니다!! ^^

▼ 사진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7년 8월 6일 ~ 8월 11일
- 장소 : 나가사키

인의협 의대생 캠프 『의대생, 나가사키 군함도에 가다』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가사키로 떠나기 전, 의대생 캠프 참가자들과 7월 15일, 22일, 29일 세 차례 만나, 사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사전모임에서는 조선인 원폭피해자의 삶을 다룬 소설 『흉터의 꽃』,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룬 『고쳐 쓴 한국현대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또,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원폭이 투하된 과정에 대해 국방TV를 통해 보았고, 민의련에 역사에 대해서는 『차별없는 평등의료를 지향하며』의 역자 박찬호 선생님께서 강연해주셨습니다. 군함도 관련해서 역사저널 그날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시계가 있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학생참가자 김성록군의 설명이 담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출발! 일본에서의 일정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에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날, 점심식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정의 첫 순서는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방문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11시 2분에 멈춰져 있는 시계와 피폭으로 인해 고통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조선인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나가사키를 향해 평화행진을 했던 평화행진단 도착식에 함께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인참가자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평화행진 도착식이 진행된 공원 한 켠에는 조선인원폭피해자 위령비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일본인들이 돈을 모아 만든 추모비는 식민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조선인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그곳에서 묵념을 하며, 그들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걸어서 우라카미 대성당, 나가이 타카시 박사의 기념관에도 갔습니다. 나가이 타카시 박사는 방사선과교수이자 반전반핵작가로도 집필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서 나가사키 평화공원도 들렀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을, 수평으로 뻗은 왼손은 평화를, 살짝 감은 눈은 명복을 비는 의미를 담은 동상도 보았습니다. 첫째 날의 마지막은 나가사키 민의련분들과의 교류회였습니다. 각자 느꼈던 소감도 나누고, 나가사키 민의련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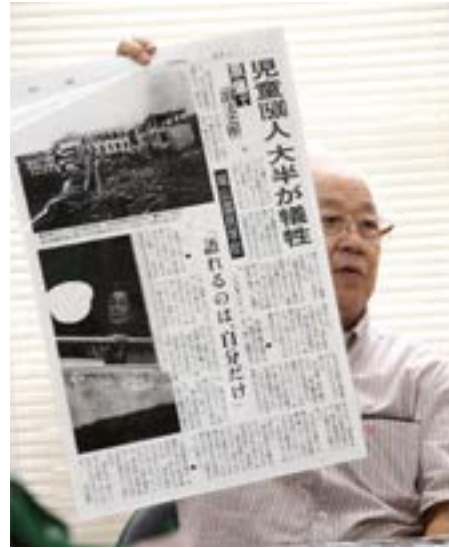
둘째 날, 우리는 사세보 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사세보항은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태풍이 불어와도 다른 항구에 비해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항구로써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할 수 있는 지형인 셈입니다. 이러한 사세보 항의 전체면적의 83%가량이 주일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타고 사세보항 전체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당시 명령이 전파된 안테나를 비롯해, 옥일기를 달고 있는 군함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국민들은 주일미군 철수 등을 외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정부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주일미군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일본의 국민들이 어떻게 싸웠는 지 등의 일화도 흥미로웠습니다.

사세보항을 둘러보고 나서 우리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가사키 시민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에는 세계 122개국 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되었다.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연사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비록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의 국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조약은 분명 의미있는 일입니다. 개막식 해외초청자 연대발언에서 겨레하나평화연구센터 이준규 연구원은 한국의 촛불혁명의 성과와 더불어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의 상황,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과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날,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에 방문했습니다. 오카 마사하루 씨는 '나가사키 제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며 나가사키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조선에 대한 가해의 역사를 알리며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기념관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알려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에무라 타카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으로, '위안부'문제를 일본에 처음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일본 우익세력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고, 지금은 한국의 가톨릭대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사키 원폭의 피해자인 오오츠카 카츠도씨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매미를 잡으러 나갔던 열 살 남짓의 어린 소년은 어느 새 노인이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의 평범했던 삶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송두리째 날아가버렸습니다. 피폭된 그의 가족들은 현재 대부분 사망했고, 그 역시 암을 판정받고 언제 죽을지 몰라 상비약을 항상 들고다녀야만 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며 담담하게 말했던 그의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끔찍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미가 우는 소리에 여름이 왔음을 느끼지만, 오오츠카 카츠도씨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끔찍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괴로울테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있으면 찾아간다고 합니다. 핵폭탄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망가트리는지 직접 증언하며 그 끔찍함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가 피폭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힘들지만 위대한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민의련참가자교류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민의련에서는 매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하며,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학습의 시간에는 후지스에 마모루 민의련회장님이 발표했습니다. 후지스에 회장님은 "원자폭탄의 위력이 무차별적인데 반해, 그 피해는 차별적이었다"며 "피폭지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차별당하며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곳에 민의련 진료소가 있었고, 빈곤과 차별, 고령화에 맞서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민의련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이련 대교류회에서 우리도 학생발언과 선생님 발언을 했습니다.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 소감을 밝히며, 한국의 상황도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 역시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대교류회에서는 작년 히로시마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접은 종이학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교류회 이후, 작은 규모의 소교류회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소감을 밝히며 평화에 대해 그리고 원수폭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일본식 구호 "당케츠 감바로(단결하여 힘내자)"를 외치고 마무리했습니다.



넷째 날,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폐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본 일본 민이련의 후지스에 회장님은 우리가 전날 선물한 학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후지스에 회장님은 "한국에서 온 첫 번째 학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대해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발언에 한국인 피폭자 박정순씨의 증언이 있었고, 민주노총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은 "더 이상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No more hirosima, No more nagaski, No more War"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폐막식 이후에 우리는 민의련소속 의료기관을 견학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병원을 각각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병원에서의 1층이라는 중요한 공간이 의사 개인의 진료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진료실로 운영되면서, 진료의 기능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쪽에 위치한 의국도 방이 개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장의 사무실과 같이 되어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군함도에 갔습니다. 조선인에게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붙여진 또 다른 이름 지옥섬. 일본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이라면서 일본의 찬란했던 시절, 파라다이스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너무 세서 군함도 땅을 직접 밟지는 못했습니다. 잠시였지만 군함도 주위를 배로 맴도는 데에도 파도가 워낙 거세, 멀미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큰 배로 가는 것조차 힘든 곳을 맨 몸으로 헤엄쳐 나오려고 했다니, 얼마나 절박한 심경이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내해주신 우치다 다케시 선생님께서 당시 군함도에 살았던 분들의 증언을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밤에 누가 소리지르는 소리를 들어 모험심으로 찾아가보면 조선인이 누군가에게 맞고있었다", "아픈 날, 일하기 어렵다고 말하면 일할 수있다고 말할 때까지 채찍질했다" 조선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출하고 싶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짧지만 길었던 5박 6일의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5박 6일간 진행된 나가사키에서의 일정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평화와 생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죽음이 아닌, 평화와 생명을 찾아 떠났던 일정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보고 느낀만큼 한국에서도 평화와 생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기고 글 보러가기

피폭 역사의 전환점과 이름 없는 사람들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사세보엔 버거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한국 의료인대표단, 2017년 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 및 민의련 교류 참관기

-[원수폭금지 2017 세계대회 참관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과 2학년 김성록 학생

-[기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경일 회원...미 주둔기지 나가사키 사세보 항 견학

** 글을 클릭하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2일 / 임시이사회 & 신입회원 환영회



8월 12일, 임시 이사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의.친.소」 의사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진행하며 알고지냈던 선생님들도, 신입회원 선생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휴가철임에도 함께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참석자 : (가나다 순 / 존칭생략) 강아름, 고경심, 고한석, 김정범, 김종명, 김지영, 김철주, 문나연, 박태훈, 백남순, 염석호, 우석균, 이미옥, 이보라, 정형준, 주영수 총 16명

8월 24일 / 월레포럼 '동아시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8월 월레포럼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님을 모시고 '동아시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철 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역을 비롯한 북한의 지하철 역사는 지상으로부터 110M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가장 응축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미국의 핵 위협을 받은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악행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핵개발은 악행이며, 각종 핵전략자산이 참여하고있는 한미군사훈련은 선행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임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UFG 훈련에는 작전계획 50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상륙, 침투하여 지도부를 참수한다는 내용의 선제타격 훈련입니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이었던 훈련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한미군사훈련은 우리가 하는 것은 선행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새벽, 문재인정부는 기어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사드는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드를 막고자했던 시민들은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인해 부상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정세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참석자: (가나다 순 / 존칭생략) 강아름, 김경일, 김정범, 김철주, 박세현, 백남순, 우석균, 이미옥, 장영우, 정형준 총 10명]

대전 · 충남 인의협

7월 5일 / 머쥬모임 및 서백경선생님 환송회



7월 5일 수요일, 대전·충남 인의협 머쥬모임과 서백경선생님 환송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7월 8일 - 7월 9일 / 희망진료소 학생MT



7월 8일 - 7월 9일(1박2일), 희망진료소에 함께 하고있는 학생들과 함께 2017 희망진료센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7월 13일 / 대전·충남 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정기포럼



7월 13일 대전·충남 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에서 '지역탈핵운동의 현황과 대안 에너지의 과제'를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고은아 처장님을 모시고 정기포럼을 진행했습니다.

7월 15일 / 박지영선생님 출판기념강연회



7월 15일 계룡문고에서 박지영 선생님의 『엄마 의사 야옹선생의 초록 처방전』 출판기념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후에는 사인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엄마 의사 야옹선생의 초록 처방전』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8월 13일 - 8월 17일 / 캄보디아 진료봉사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캄보디아 진료봉사에 대전인의협 회원 김삼용 선생님이 참가했습니다.

8월 23일 / 머쥐모임



8월 23일 머쥐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머쥐모임에서 함께 나눈 책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한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입니다.

8월 / 인권위 정신·장애요양시설 실태조사 참여



인권위에서 발주한 전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건강검진에 민들레 의료사협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구 · 경북 인의협

7월 12일 / 소성리 평화 음악회



7월 12일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투쟁위가 촛불을 든 지 36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성주 군청 앞 평화나비광장서 ‘평화기원 성주음악회’가 개최되었고 대경인의협 회원분들과 함께 하며 어서 사드가 철회되어 이 투쟁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참가자(가나다순) : 김동은, 김일희, 노태맹, 송광익, 정태성, 김선주

7월 19일 / 2017년 제 4차 대경인의협 포럼



이번 대경인의협 포럼은 <재난의 사회정신의학-재난공동체와 재난 빈곤>이라는 주제로 김현수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체르노빌 사건, 카트리나 대홍수, 세월호 사고 등 재난 사고들을 예로 들어가며 재난앞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만 이후 구조, 수습, 회복은 불평등 하다는 점, 개인의 회복은 집단의 회복을 뛰어넘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관점이 아니라 먼저 연대, 함께 힘을 나눈다는 것으로의 전환, 현장리더십의 최우선 지원의 중요성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많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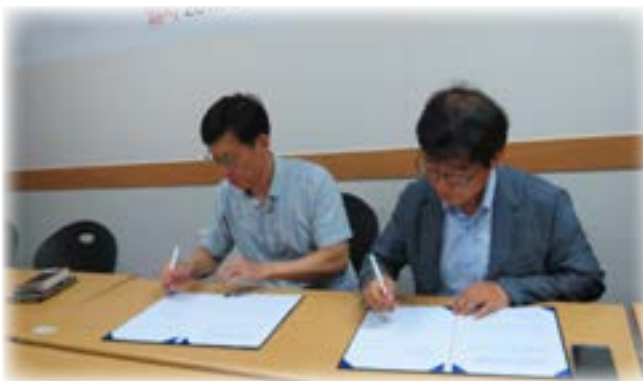
*참가자(가나다순) : 강종문, 김건우, 김동은, 김성아, 김진국, 이정화, 이종우, 김선주(대경인의협) 외 총 24명 참가

8월 17일 /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대구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 900여개 단체가 모여 지난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출범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바라는 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시민참여 캠페인,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자 지난 8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경인의협도 이에 연명을 하고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 하였습니다.

8월 23일 /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식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한 의학자문, 피해자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공동활동 수행을 위해 (사)장애인지역공동체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두 단체가 함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산 · 경남 인의협

7월 5일 / 피스로드 부산 기획단 모임



7월 5일 피스로드 부산 기획단 모임을 서구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고신의대 3명, 부산의대 1명, 부경인의협 2명 참석했습니다.

7월 7일 / 피스로드 참가자 모임



7월 7일 피스로드 부산 참가자들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부경인의협 정운용 대표님이 '인의협 활동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7월 18일 /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 강연회



7월 18일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을 주제로 정형준 인의협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초청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7월 30일 / '도서관 기억의 숲' 방문



7월 30일 이귀숙선생님 부부가 운영하는 양산 배내골에 있는 '도서관 기억의 숲'을 방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영화도 보고, 이후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왔습니다.

8월 7일 / 노숙인 아웃리치 참가



8월 7일 노숙인 아웃리치에 참가했습니다.

9월부터 '노숙인'을 주제로 의대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사업 준비를 위해 고신의대 학생 2명이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야간 아웃리치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8월 8일 /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공익적 병원 설립방안 모색토론회'



8월 8일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공익적 병원 설립방안 모색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했고, 정운용, 윤태호 선생님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발제를 했고, 그외에도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 최병무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영 금샘마을공동체, 주재범 침례병원 노조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8월 23일 / 의대생 캠프 보고회



8월 23일 의대생 캠프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2번의 의대생캠프가 진행되었는데, 국내캠프인 '피스로드'는 고신의대 학생이, '나가사키 캠프'는 정문용선생님이 보고했습니다.

GP가 말하는 대리사회, 대리노동



GP 3명이 모였다. GP는 general practitioner의 약자로 ‘일반의’라는 뜻이다. 의사면허증은 있지만 전문의는 아닌 의사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병원문화는 전문의 중심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라면 당연히 ‘무슨 과’ 의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슨 과’가 없는 의사도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반의가 된 젊은 의사 3명이 모여 [대리사회]를 읽고 의료계의 [대리노동]을 이야기했다.

GP 소개



GP1 SAY:

저는 졸업하고 작년에 모교병원에서 인턴을 했어요. 하고 싶은 과에 지망을 했지만 떨어져서 올해 1년 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합니다.



GP2 SAY:

저는 올해 졸업하고 인턴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근무가 힘들어서 3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잠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피부미용전문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하나하나 배워 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GP3 SAY:

저는 올해 졸업했고 과감하게 일단 올해는 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여유없이 살았던 것 같아서요. 저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턴 지원을 안 했고 인천의 한 요양병원 당직의로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의 인턴생활에 대해 단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고 있지요.

대리사회, 대리노동, 대리병원



GP2 SAY:

이번에 처음 함께 읽은 책은 [대리사회]였어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줄여서 ‘지방시’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민섭씨가 대학을 나와 대리운전을 하며 쓴 책이죠. 저도 인턴을 나오면서 그때 가졌던 생각들을 매일 일지처럼 써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별로 못했는데 벌써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이 희미해져서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저자는 기본적으로 글솜씨가 좋은 분이긴 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주체로 견디게 해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GP1 SAY:

저도 인턴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저자가 있었던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도 하나의 대리사회 같아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죠. 인턴은 당연하고, 레지던트는 레지던트대로, 교수님은 교수님들대로,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모두 엄청난 노동강도와 경쟁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환자들도 당연히 괴롭구요. 병원은 한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요. 특히 인턴에게 도저히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죠. 인턴들끼리 어떻게든 알아서 하라는 것 같은데, 엄청 외딴 곳에 있는 자기집에 가자고 대리를 부르는 사람들과 같은 것 같아요. 밤늦은 시간에 외진 곳까지 가면 대리기사는 어떻게 돌아가라는건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인턴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내라는건지...



GP2 SAY: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는 점은 책을 보고 생각해 보면 스스로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의 입장을 병원의 입장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책에서 보면 사람들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이 학문의 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돈을 버는 목적인 병원들보다 더 많은 욕망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GP3 SAY:

저는 요양병원에서 한달에 15일을 밤에 근무를 해요. 간호사들이 저를 당직과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당직실이 따로 없어서 가정의학과 과장님 방에 있어요. 낮에는 가정의학과 과장님의 진료실이죠.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뭔가 불편했는데 대리기사가 느끼는 불편함과 비슷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대리노동의 정의에서, 말과 생각까지도 규정된다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를 본다는건데, 제가 그동안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아부했던 것은 보통 선배나 교수님 앞에서였거든요. 권력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노동을 통해서도 권력관계가 재편될꺼라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키는 대리노동



GP2 SAY:

책에서 대리기사나 환경미화원, 밤에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요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들의 노동을 잘 비유하면서도 슬픈 단어인 것 같아요.

GP1 SAY:

병원에도 요정들이 많죠. 자기 부모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 무조건 큰 소리만 치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늙고 쇠약해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도 왔다갔다 하는 노인환자에겐 주치의나 인턴이 하는 일보다는 간호사나 간병인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죠. 보호자는 낮에 잠깐 와서 보고 가면서 밤새도록 아니 하루 종일 먹이고 가래 뽑고 목욕시키고 똥오줌 치우는 간병인들의 노동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좋아지면 당연한거고 혹시 욕창이 생기거나 눈에 보이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난리가 나죠. 간병인들도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요정들인 것 같아요.





GP3 SAY:

저도 대리노동을 시킨다는 걸 느꼈던게 제 방에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오실 때였던 것 같아요. 보통 아침 6시-7시경에 들어오셔서 청소해주시고 쓰레기 버려주시는데, 처음엔 기분이 미묘하더군요. 책을 읽으면서 가정의학과 과장님이 이 요정의 존재를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저자가 손님의 태도에 따라 기분이 천차만별로 변하잖아요. 소위 요즘 말하는 '갑질문화'가 생각났는데요.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는데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부터 말이죠.

을과 을의 전쟁



GP3 SAY:

을과 을의 전쟁 부분에선 병원 인턴과 간호사들의 전쟁이 떠올랐어요. 지금 인턴하고 있는 동기들 보니까 간호사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내용을 보면 결국 로딩문제인데 인력부족이 원인이고 인력이 총원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을끼리 싸우게 만들고, 을끼리의 갈등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GP1 SAY:

인턴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모두 힘든데도 공동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과에서 시키는 인턴 업무가 너무 과도하고 힘들어서 공식적으로 병원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 과에서 픽스턴(다음해 레지던트가 되기로 확정된 인턴)들을 불러서 혼내고 물건을 막 부수면서 화를 냈대요. 같은 동기이자 친구가 그렇게 당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결국 우리들의 요구는 흐지부지 되었어요. 을끼리 서로 입 다물게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GP2 SAY:

이 책을 읽고 나니 실제 현실이긴 하지만 현실의 민낯을 드러낸 영화 한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사회의 어떤 핵심, 꼬이고 꼬여 뒤틀어진 핵심문제가 이 책 안에서 표현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의료계에서도 비슷한 아니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가 GP여서 더 많이 당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예민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생각과 문제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GP1,2,3 SAY:

짹짹

신입회원 소개:D



Q.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늦깎이 전공의입니다. 2004년에 대전의 건양의대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의 개원의로 살다가, 뜻한 바(?)가 있어 늦은 나이에 인턴, 전공의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산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2년차입니다.

그리고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라는 국제 스쿠버 다이빙 단체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인의협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에게 있어 부산은, 몇 개월씩 계획을 세우고 난 후,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여행 가는 먼 도시였습니다. 연고가 있어서 부산에서 수련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후배의 소개를 통해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어, 친구도 없고 연고도 없이 나홀로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함께 하고픈 공동체를 찾던 중, 서울인의협의 이보라 선생의 소개로 부산인의협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공이라는 핑계로 띄엄띄엄 모임에 나가고는 있지만, 인의협 모임을 통해서 머리roman 알던 생각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Q. 인의협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부산인의협에서 통일의료모임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세대에는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통일 후의 의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통일 후의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도 마찬가지로요. 그날이 오면 쓸모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학생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의협이 이제 3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젊은 의사들이 명맥을 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생 시절부터 인의협에 대해서 알아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의협의 세대교체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Q. 선생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선생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그 이유는요?

‘또라이’입니다. 평소 주변의 사람들 1000명 중에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 한 명이 되지 않으면(0.1% 미만)에 해당) 또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주변의 사람들 1000명 중에 저와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 없더라구요.

달걀을 품었던 에디슨이나, 열 두 척의 배로 전쟁에 임했던 이순신도 또라이,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나, 국민들에게 총질을 해댄 전두환도 또라이지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또라이들이지요. 어느 쪽에 서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저는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또라이가 되고 싶어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요.

Q.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좋은 의사’라고 하면 너무 식상한 대답이겠지요? 사실 좋은 ‘의사’보다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삶에 지쳤을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그럴 때에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 언제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실천해나가는 인의협 선생님들을 알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ming Soon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광고입니다^^

09

SEPTEMBER 2017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대전·충남	3
4	5 서울·경기	6	7	8	9	10
11	12	13 부산·경남	14	15	16	17 대구·경북
18 대구·경북	19	20 서울·경기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월 2일 (대전·충남인의협) 문재인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을 논하다

9월 5일 (서울·경기인의협) 열린월례포럼 「문재인케어, 전망과 대안」

발제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9월 13일 (부산·경남인의협) 초청강연회 「한반도 전쟁위기와 남북관계 전망」

연자 : 장창준(겨레하나 평화연구소 연구원)

_겨레하나 '통일포럼' 공동주최

9월 17일 (대구·경북인의협) 진단협 제 1차 사람@공감인권투어 at 경산코발트광산

문의 : 053-425-7029

9월 18일 (대구·경북인의협) '권영진 대구시장 3년 보건분야 평가 토론회'

9월 20일 (서울·경기인의협) 국제 보건 세미나 「GHW」 발제 : 김새롬


Struggles for health in Europe / The struggle against a destructive mining project in Greece / Aboriginal community-controlled health services in Australia


**자세한 내용은 각 지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의협 창립 30주년

30th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통해 다시금 재도약 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의협 30년사 책자발간

 인의협 창립 30주년 기념식

일시 : 2017. 11. 18 (토) 오후 7시
장소 : 서울 여심프라자

 인의협 창립 30주년 국제 학술대회

일시 : 2017. 11. 21 (화) 오후 3시 반 ~ 오후 9시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403-018093

후원금액

30만원/50만원/100만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